

종교문화특혜 제12호
연 등 회

“지혜와 자비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세상에 희망을 안아주어 행복’을 만들어주는 30여 만명의 세계인이 온갖 문화의 성취에 동참했다. 지난 11일 수일 만 명이 참여한 동남권은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동대문을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종로거리 일대를 열렬하게 돌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장엄등을 만들고 준비한 연등, 연등회, 불등 등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교문화특혜인 연등회를 즐겼다. 또한 12일에 조계사에서 우왕궁로 일대에서 열린 ‘불교문화마을’ 전통놀이 등이 많은 사람이 참석해 흥겨운 연등회를 이루고 있다.

김원주 · 신재호 기자



- ① 제등행렬을 마친 후 종각사거리에서 열린 희망연등회.
- ②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연등행렬에서 춤무용한 자승스님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
- ③ 흥취있는 스님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참여해 입장했다.
- ④ 불교문화마을에서 자신이 만든 등불을 감상하고 있는 외국인.
- ⑤ 특색있는 등불이 많이 등장했다. 마릴리아 등.
- ⑥ 어느 자리에서나 연등축제는 즐긴다.
- ⑦ 서울행이대유를 가득 담은 사랑등.
- ⑧ 연등이 종로거리로 열렸다.

